

사진속에서 넘쳐나는 생활의 향기

문화사진관에서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나 생활의 의의있고 인상적인 계기를 두고두고 기억하고싶을 때 사람들은 사진을 즐겨 찍는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마음은 즐거워지고 생활의 향기는 더욱 짙어진다.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문화사진관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아오고있다. 얼마전 기자가 이곳을 찾았을 때 한쌍의 청춘남녀가 약혼기념사진을 찍고있었다.

전성남 문화사진관 관장: 《약혼사진이나 결혼사진을 남기는것은 누구에게나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목적은 같아도 찍는 방식은 매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성격과 취미, 직업, 생김새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것을 화면에 진실하고 생동하게 담을 때 사람들이 두고두고 추억하는 사진으로 될수 있지요.》

다양한 생활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상깊은 순간을 찾아내어 사진에 담는것이 사진사들이다. 이곳 사진사들은 손님들이 찾아오면 사진찍는것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은 가족사진을 찍으러 온 손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한다. 사진은 보면서도 사심없이 제작자의 밑거름이 되어준 아버지의 한쌍을 추억하게 되고 또 아버지앞에 부끄럽지 않게 맡은 일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좋아하였다.

이곳 사진관에서는 손님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각이한 배경화면을 자체로 제작하여 촬영에 리용하고있는데 그 예술적효과가 자못 크다고 한다. 이들은 밝고 선명하면서도 아름답고 림체감이 강한 아크릴사진을 제작하고 자체



의 힘으로 특수인쇄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보는 사람들마다 사진이러기보다 한쪽의 예술작품을 보는것 같다는 평을 받고있다. 이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진을 받아들이고 기념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사진첩과 액틀도 자체로 만들어 봉사해주고있는데 얼마전에는 량면인쇄기술을 받아들여 사진제작기술을 새롭게 혁신하였다.

국섬은 통천군 자산리 앞 바다에 있는 섬이다. 바다가운데 있는 섬의 경치는 매우 아름답다.

이곳 사진관에서는 손님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각이한 배경화면을 자체로 제작하여 촬영에 리용하고있는데 그 예술적효과가 자못 크다고 한다. 이들은 밝고 선명하면서도 아름답고 림체감이 강한 아크릴사진을 제작하고 자체

국섬의 면적은 0.057km²이고 둘레는 1.07km, 높이는 41m이며 150여개의 다각기둥모양의 림돌들이 20~30m 높이로 직벽을 이루고있다. 섬의 세 면(북, 동, 남)은 잘 다듬어 세워놓은듯한 다각형돌기둥들이 바다에 뿌리박고 줄지어있어 마치 총서정을 현상시킨다. 북쪽기슭에는 높이 20~30m의 수많은 돌기둥들이 우뚝우뚝 줄지어 서있다. 그것은 동해의 푸른 물결과 어울려 마치 푸른 비단필우에 병풍을 친것 같이 아름답다.

이곳 사진관에서는 손님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각이한 배경화면을 자체로 제작하여 촬영에 리용하고있는데 그 예술적효과가 자못 크다고 한다. 이들은 밝고 선명하면서도 아름답고 림체감이 강한 아크릴사진을 제작하고 자체

◆ 사람은 내리고 보답은 오른다. 언제나 사람은 웃사람에게서 아래사람들에게로 내려가고 보답은 사람들한테서 웃사람들에게로 올라가는것임을 이르는 말. ◆ 한잔술에 눈물나고 반잔술에 웃음난다. 사람들사이의 교제에서는 물질적인것보다도 서로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과 진정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 ◆ 말갈지 않은 말은 아예 듣지도 말라는것을 이르는 말.

◆ 원칙과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라는것을 이르는 말. ◆ 말하면 백만금이요 입 다물면 천냥금이요. 풍수없이 말을 이겨져것 많이 하는것보다 아니하는것이 더 돈보인다는 뜻으로 필요없는 말은 하지 않는것이 좋을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말은 바른대로 하고 큰 고기는 내앞에 내놓아라. 말은 있는 사실 그대로 하며 가져간 큰 고기는 감추지 말고 내앞에 내놓으라는 뜻으로 말로 거짓을 꾸미거나 남을 속이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을것을 꾸짖어 하는 말.

사화

노루친 몽동이 3년 우리다 (1)

글 리유근, 그림 채대성

조선봉건왕조시기 있는 이야기이다. 밀양 송씨문중이 사는 학당골 송생원의 상여가 나가는 날은 참으로 평강했다. 집으로부터 선산이 있는 10여리연도에 행상군들이 줄지어 늘어섰고 상사소리 곡성이 한데 어울려 하늘땅을 짝 메웠다. 맨앞에 명정을 추켜든 사람이 있는데 긴 장대끝에 홀날리는 붉은색 비단바탕에는 주먹같은 글씨로 《학생 덕안 송회재령구》라고 씌여있었다. 《학생》은 벼슬하지 않은 선비의 령구에 다는 이름이고 《덕안》은 그의 호였다. 편안한 덕을 지녔다는 뜻이다.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 등 사방방위를 상징하는 기발들과 중, 동, 서, 남, 북 5방을 상징하는 황, 청, 백, 적, 흑의 5방대기를, 만장을 든 조객들의 행렬이 줄지어 따라섰고 그와 10여간동 떨어진 호화스럽게 꾸민 상여가 떠갔다. 모두 거나하게 취한 여덟명의 상두군들이 상여 좌우에서 이리 비틀러 지리 비틀러며 도감의 지휘에 따라 상여를 메고갔다. 북망산이 천리라더니 지척이로구나 어호 어호 어호... 누군가 상사소리 한마디를 선창하자 일동이 그위를 받았다. 인생백년이 허사르다 이런 날 울출어이 풀렸던가 어허어허... 그때마다 상여위에 늘어진

상제들과 여러 조객들이 각이한 목적으로 목을 했다. 혼혼한 봄바람에 필력이 있는 기발들, 만장들, 상여위에 벌려진 차일이 뒤달리듯 굼니는데 간담없이 울리는 정소리, 북소리가 일종의 엄숙한 느낌까지 자아냈다. 앞뒤좌우로 왔다갔다하던 도감이 뒤라 한마디하자 모든 상여군들이 금기야 그자리에 딱 멈추었다. 북망산길에 하도 험하고 멀어서 더는 못 가겠단다는 것이다. 그러자 제일 만장제인듯한 너슬너슬한 배강투를 쓰고 굵다란 색시 베오라기를 둘러잡은 대지쟁이로 땅을 두터이 상여를 붙들고서 연침을 꺼내어 상두도감의 피촉에다 찔러주었다. 도감은 금시에 입이 헤쳐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력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2019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 (1)

통남산이 자랑하는 여성교육자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부 강좌장 교수 박사 최춘화는 영화편집과정의 종합정보화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높은 실력과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앞장에서 이끌어온 통남산의 손꼽히는 여성교육자이며 과학자이다. 그녀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력사와 업적을 후손대대에 길이 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 연구과제수행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왔다.

장으로 내세워준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피라게 노력해왔다. 이 나날에 강좌의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값비싼 전술설비에 의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첨단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방법으로 종합적인 영화편집공정체계를 확립하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는 초고속상도색백색사진을 천연색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높은 실적을 내었다. 기사보다 국사를 귀중히 여

기고 30여년세월 통남산의 교단을 지키가는 보람찬 나날에 그는 여러차례의 훌륭한 과학교육성과를 이룩하였다. 여러개의 새 과목을 개척하고 20년의 교과서, 참고서들을 집필하였으며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된 여러건의 논문 등 수십건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또한 수십건의 각종 과학기술 중시료를 수여받고 2명의 박사후보자를 배출한 여러건의 학위소유자를 양성하였다. 과학적이며 전략적인 안목으로 강좌를 시각정보처리분야의 판독있는 학술 및 연구집단으로 만들고 원칙적이면서도 강한 요구성으로 강좌성원들이 자기의 뚜렷한 몫을 가지고 높은 실력과 창조적인 협동능력을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전투력과 집단력이 강한 일류강좌로 되게 한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한가정의 주부이고 더우기 나이도 적지 않은 여성의 몸으로 교육사업과 동시에 첨단과학연구사업을 하우이름도 아니고 여러해동안 긴장하게 진행해온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한일보다 할일이 더 많았던 30대 초엽에 통남산의 권위있는 교육자들과 나란히 조선지식인대회에 불려주고 40대에는 시각정보처리강좌의 초대강좌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김득신과 그의 그림

김득신은 18세기에 김홍도와 가까이 사귀면서 사실주의풍속화창작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는 자기의 그림에 백성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여 당대의 신분관계와 경제생활, 세태풍속 등을 생동하게 펼쳐보여

라반 등 매 인물의 표정과 몸가짐을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성격과 심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였다. 《고양이를 쫓는다》는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던 농촌집 안마당에서 벌어진 한 토막의 사건을 재미있게 보여주고있다. 고양이에게 물린 병아리의 울음소리에 놀란 어미닭은

학적으로 형상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음을 금할수 없게 한다. 김득신은 진지한 현실탐구에 기초한 생활계기설정에서의 재치, 인물형상에서의 예리성, 섬세성을 안반친한 생활묘사의 생동성과 현실반영의 진실성 등으로 사실주의풍속화발전에서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풍속화 《고양이를 쫓는다》 (김득신 작)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량반과 농민》, 《고양이를 쫓는다》 등이 있다. 김득신은 풍속화와 함께 산수화, 동물화도 그리었다. 그가 그린 인물풍속화들은 묘사대상의 폭이 넓고 주제와 내용에서 깊이가 있다. 《량반과 농민》은 여름날 나들이가던 부부가 길에서 량반행차를 만나 골소하게 절하는 모습을 통하여 당시 불평등한 봉건적인 신분제도를 보여주고있다. 순진하고 소박한 부부와 눈웃음짓는 하인, 거드름피우는

속담과 명

7월은 년중 가장 더운 삼복철이 시작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이다. 7월의 절기에는 여름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와 큰 더위가 있다는 대서가 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소서 때 농작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데 맞게 김매기를 따라세웠다. 대서를 전후하여서는 주로 다음해에 쓸 풀거름을 장만하였다. 7월에는 일반적으로 한해 가운데서 가장 무더운 삼복

7월의 절기와 민속

중의 초복과 중복이 있다. 일반적으로 삼복기간은 초복과 중복사이가 10일, 중복과 말복사이가 10일이다. 올해와 같이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 되는 해도 있는데 이러한 해의 삼복을 열복이라고 한다. 삼복철의 음식으로서는 단고기장, 초계탕, 팔죽, 비빔밥 등을 들수 있다. 특히 단고기장은 삼복철에 우리 겨레가 즐겨 먹는 특색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력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목실쟁이

지주가 죽기 전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숨만 짓고있는것을 본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아직 마음놓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마음놓이지 않는것이 아니라 난 눈을 감을수 없다.》 《왜서요?》 《그날 너의 외삼촌네 집에 가서 그 고기 한점을 못

다 먹었던말이야!》 《왜 저가락을 가지고 먼저 집지 않았어요?》 《저가락에는 벌써 하나 집혀있었지!》 《그렇다면 왜 입에 넣지 않았어요?》 《입에도 하나 물고있었던 말이야!》 《왜 넣지 않았어요?》 《목구멍에도 아직 하나 있었던말이야!》

정도령

정도령도 인심 후하고 대의에 밝은 송생원을 각별히 친근하게 대해주었다. 정 공군하게 되면 며칠이고 사랑방에 와 묻혀살며 그의 말벗이 되어 밤을 새운적도 많았다. 송생원은 역시 저대로 이것을 고맙게 여겼다. 우에서도 잠간 비쳤거니와 송생원은 특별히 문벌을 귀하게 여겼다. 그도 그럴것이 그는 《기사환구》(속종 15년 왕위계승문제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파간에 벌어진 당쟁)에 의하여 화를 당한 송시림의 7세손으로 비록 벼슬은 안했었지만 조상의 반연을 이어받아 학식있고 고골에서라도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다. 특히 송생원은 효성심이 남달랐다. 그는 대대로 조상의 분묘가 있는 선산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부친이 돌아갔을 때에는 리묘살이를 3년간하고 몸이 쇠하여 거의 죽게 된것을 온 일가문중이 떨쳐나 구원하여 겨우 살아났다. 이렇게 3년간을 마치고도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부모제사를 받치는 때가 없었다. 돌

제, 생일제, 명절제를 비롯해서 한해에도 몇번씩 오는 제사를 그는 매양 각근히 받들었다.

금수강산 찬사해 영화화맹 일출천... 금수강산 사방에 불이라 꽃된 거리엔 피꼬리노래 해는 중천에 떴구나 라는 노래에도 뜻이 이때는 왕이 하도 무능하여 아무런 정사도 하지 않은데 이 시절이 참으로 《태평》했다. 상기 시구는 매일 한가롭게 흘러가는 당시 정세를 풍자하여 어느 누가 지어 들린 노래이다. 이에 따라 풍속도 자연 해이해지고 문란해져서 조상전례의 모든 미풍양속이 날로 그 면모를 상실해가고있었다. 이런 때에 송생원이 선영(조상의 무덤)을 고수하고 가배(집안의 태평)를 것처럼 엄격히 지켜왔으며 이렇기 3년간을 마치고도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부모제사를 받치는 때가 없었다. 돌

편집위원회